



# 빛나는 덕이 있는 곳... 한국의 봄날을 찬미하다

[사찰순례] 안동 봉정사와 영국 여왕

동욱 | 작가



봉정사 대웅전엔 텃마루가 있다.

다른 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텃마루가 대웅전 앞에 짝이 어져 있다. 보기 드문 모습을 담으려고 휴대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는 데 이건 또 뭐지?

뜻밖의 주인들이 순례자를 반긴다.

여기저기서 '지배배'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제비 몇 마리가 날아든다. 대웅전 현판 사이를 제 집 드나들 듯 자연스럽게 오가는 제비들.

'이곳이 흥부네 대청마루인가'

'혹시 박씨를 물고 온 건 아닐까'

잠시 즐거운 상상에 잠겼다.

강남 갔다가 4월 초쯤 우리나라에 오는 봄의 전령사 제비가 봉정사 대웅전에 자리 잡은 건 무슨 연유일까?

괜한 호기심을 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전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무더기 돌탑이 눈에 들어온다.

아래쪽엔 기와를 세워 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은 뾰족해지는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 갔다가 4월 초쯤  
우리나라에 오는 봄의  
전령사 제비가  
봉정사 대웅전에  
자리 잡은 건  
무슨 연유일까?



봉정사 대웅전 처마위의 제비 5마리

1999년 4월 21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곳 돌탑에 작은 돌 하나를 얹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일흔세 번째 생일을 고향 영국에서 직선거리로 9,000km가량 떨어진 한국, 그것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사에서 맞이한 느낌은 어떠했을까?

영국인들은 “여왕의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여왕은 봉정사에서 무엇을 바라봤을까?

“1300여 년 전 어느 봄날인가 봉정사 낙성식에 가고 싶었던 신라 공주가 있었다. 공주라는 신분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이곳을 꼭 가보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말나식’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 ‘아뢰야식’에 저장됐다. 공주는 윤희를 거듭하여 영국 여왕이 되었다. 여왕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미완의 생각이 인(因)이 되어 한국 방문이라는 연(緣)을 만나자 가고 싶었던 봉정사를 온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을 ‘인연’이라 한다. 마치 연꽃의 씨가 오랫동안 마른 진흙 속에 묻혀있었지만 비를 만나면 다시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불교신문, 2021. 11. 30.>



봉정사 극락전 아래서 본 정면



봉정사 극락전 앞 돌탑에 돌 놓는 영국 여왕과 일행



봉정사 방문한 영국 여왕의 모습



봉정사 극락전과 앞에 있는 돌탑

불교에서 ‘마음을 구성하는 식(識) 가운데 일곱 번째인 말나식과 여덟 번째인 아뢰야식을 인용해 여왕의 마음을 풀이한 게 순례자로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불교 신문다운 해석이라는 생각도 든다.

“가장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던 엘리자베스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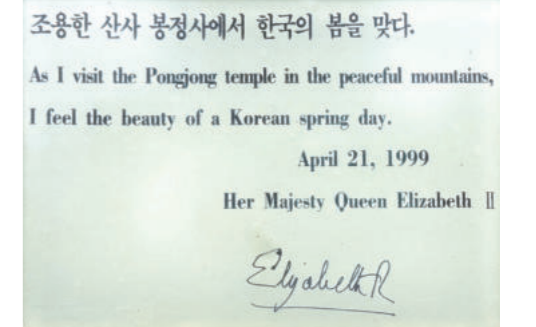
“평화로운 산 속에 자리 잡은 봉정사를 찾았을 때 나는 한국 봄날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As I visit the Pongjong temple in the peaceful mountains, I feel the beauty of a Korean spring day.”는 글을 남겼다.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인 672년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대덕이 창건한 신라시대 고찰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자 간결하고도 강한

아름다움을 지닌 극락전과 조선시대 최고의 대웅전 등으로 이뤄져 있고, 질서정연한 건물 배치로 가장 단정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산사’라고 봉정사는 설명한다.

순례자에게 ‘봉정사’ 이름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품격이 더 좋다.



봉정사 방문한 영국 여왕의 사인판,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



봉정사 만세루에 올라 바라본 산하



봉정사 만세루에 걸린 덕회루 현판

절이 앉은 자세가 마치 봉황이 머물고 있는 듯해 봉정사라고 한다.

‘하늘에서 선녀가 등불을 내려 환하게 밝혀 준 ‘천등산(天燈山)’에서도 ‘봉황이 와서 머무르는 곳(鳳亭)’에 자리 잡았으니 그 이름만으로 멋진 곳이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올라 우리 산하를 바라봤다는 봉정사 만세루에 오르면 천등산이 눈앞에 펼쳐진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곳도 많은데, 만세루는 직접 오를 수 있어 순례자에게는 무척이나 반갑다.

대웅전 쪽으로 바라보면 덕회루(德輝樓)라는 현판이 보이고 산 쪽엔 만세루(萬歲樓)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빛나는 덕이 만세에 걸쳐 이뤄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을까?

덕회루 현판에는 1913년 계축년 한 여름에 김가진이 썼다고 적혀있다.

동농(東農) 김가진(1846~1922).

‘1877년 문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간 문신으로 주일본 전권 대신을 지낸 ‘조선의 외교관’이다. 1895년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고, 농상공부 대신 등을 역임했다. 61세이던 1907년 관직을 떠난 뒤 계몽단체인 대한협회를 이끌었고 일제의 강제병합을 끝까지 반대했다. 1919년 10월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상하이 임시정부로 가 ‘일본과의 혈전’을 준비했지만 1922년 상하이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동농문화재단 홈페이지 발췌>

상하이 망명 당시 그의 심경을 담은 시가 독립신문에 실렸다.

절이 앉은 자세가 마치 봉황이 머물고 있는 듯해 봉정사라고 한다. ‘하늘에서 선녀가 등불을 내려 환하게 밝혀 준 ‘천등산(天燈山)’에서도 ‘봉황이 와서 머무르는 곳(鳳亭)’에 자리 잡았으니 그 이름만으로 멋진 곳이다.



봉정사 영산암 내부 모습

나라가 부서지고 임금이 없어지며 사직이 고꾸라졌기에  
(國破君亡社稷傾)  
부끄러움을 꺼안고 죽지 않고 참아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네(包羞忍死至今生)  
그러나 늙은이 마음은 오히려 하늘을 찌를 뜻은 있어  
(老心尚有衝霄志)  
일거에 힘차게 날아올라 만 리는 갈 수가 있네.  
(一舉雄飛萬里行)

<독립신문, 1919. 11. 4., 브레이크뉴스, 2022. 7. 28. 재인용>

한학과 서예에도 조예가 깊었던 구한말 개혁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인 김가진.

동농 김가진이 쓴 덕회루 현판 글귀는 중국 전한시대 가의(賈誼:BC 200~168)가 지은, 굴원의 절개를 기린 ‘조굴원부(弔屈原賦)’의 한 구절에서 따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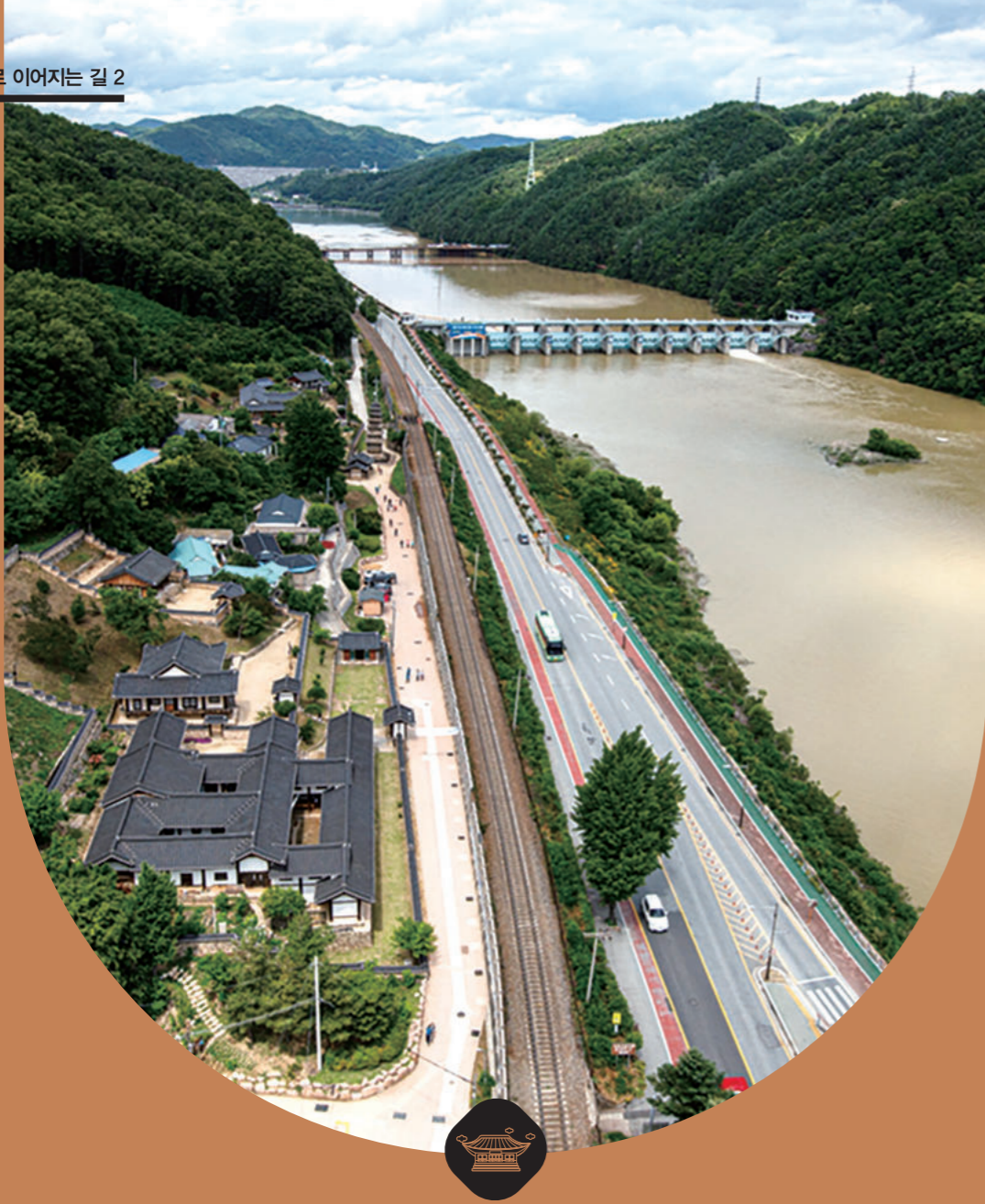
봉황은 천 길 높이로 날며 덕이 빛나는 곳을 보고 내리고,  
(鳳凰翔于千仞兮 覽德輝而下之)  
덕이 없고 험악한 조짐을 보면 멀리 날아가 버린다.  
(見細德之險微兮 遙增擊而去之)

봉황과 영국 여왕, 독립 운동가의 사연이 교차하는 봉정사. 언제라도 한 번쯤 가서 찬찬히 돌아볼 만한 우리의 세계유산이다. 제비가 강남에서 오는 봄날이면 더 좋겠다. 🇰🇷



천등산 봉정사 현판을 단 만세루(덕회루)

봉정사 만세루 현판과 산쪽 방향



## 봄날의 산사로 이어지는길

도로교통 저널 편집부

길은 늘 먼저 와 있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 목적지를 정하고 차에 오르고 어느새 도착하는 동안, 도로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실어 나른다.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내지만, 길은 숨 쉬는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안동 봉정사로 가는 길도 그렇다.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서안동IC로 나온 뒤, 국도 34호선과 지방도 924호선을 지나 서후면과 봉정사 삼거리를 거쳐 산사로 들어서는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라기보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에 가깝다. 도시의 기운은 조금씩 멀어지고, 사람의 호흡은 차분해진다. 좋은 길은 단지 빠르게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도착할 장소에 어울리는 마음까지 준비하게 한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봉정사는 더욱 깊다.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인 672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극락전과 단정한 아름다움의 대웅전을 품은 고찰이다. 오래된 처마와 나무 기둥, 산사의 고요한 공기는 세계유산의 아름다움을 화려함이 아닌 침착한 품격으로 전한다.

봉정사에 이르면 비로소 알게 된다.

길은 단지 절까지 이어주는 시설이 아니라, 이런 풍경을 온전히 만나게 하는 준비였다는 것을. 누군가 닦고, 잇고, 지켜낸 도로가 있기에 우리는 먼 곳으로 가고, 더 깊은 세계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나 도로는 늘 너무 자연스럽게 곁에 있어 그 고마움을 자주 잊게 된다.

봉정사로 이어지는 길은 그래서 특별하다. 고속도로에서 국도와 지방도를 지나 마지막 산사 길에 이르기까지, 도로는 여행의 도구이자 마음의 완충지대가 된다. 우리는 목적지만 기억하기 쉽지만, 어떤 장소는 그곳에 이르는 길까지 함께 남긴다. 안동 봉정사가 바로 그런 곳이다. 길은 오늘도 말없이 우리를 품고, 산사의 고요한 아름다움 앞까지 편안히 데려다준다. 🇰🇷

